

전 자 보 고

문서번호	우편물류과-3040
보존기간	
보고일자	2017. 12. 08.
공개여부	공개

★우편물류과장	우정사업국장	청장
권명식	김규영	12/11
		전성무

제 목	「집배 근로개선 TF」 2차 전체회의 및 현안사항 설명회 결과 보고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일시 및 장소 : 17. 12. 7.(목), 13:30~18:00, 우본 7층 중회의실

2. 참석자

- (본 부) 우편집배과장, 박상운 사무관 등 4명
- (지방청) 우편물류과장, 집배담당, 남울산 집배실장

3. 주요 회의내용

<본부 업무추진 일정>

- 12. 13.^수 :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과정부 제출
- 12. 15.^금 : 총괄국장 대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설명회(교육원)
- 12. 15.^금 : 비정규직 초과근무 관련자료 발표
- 12. 18.^월 : 전국 집배실장과 본부장과의 대화(교육원)
- 12. 21.^목 : 집배원 노동강도 설문조사 사전 설명회(교육원)
 - ※ 전국 총괄국 노·사측 관계자(국당 2~3명)
 - 우정노조 : 노조간부 및 우체국 지부장
 - 집배노조 : 노조간부(3명) 및 우체국 지부장*
 - * 17. 8. 25. 이전 설립지부에 한함
 - 사 측 : 총괄국 우편물류과장
- 12. 25.^월 : 경영혁신전략 25항목 BH 보고
- 12. 28.^목 : 집배원 노동강도 인식 설문조사

<우편집배과장>

- 경인청 화성향남우체국(집배센터) 초과근무 문제
 - 노동부 및 경찰청에 고발된 사안으로 징계, 형사처벌의 심각성
 - 향후 초과근무 관리 철저, 본부에서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히 조치
- 도서·격오지는 선박 운행시간상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장시간 근무하는 사례 발생→ 실제 업무 부하량에 맞지 않는 초과근무 사전명령 지양
- 상시집배원 출근시간과 초과근무 명령 조사 중, 금년 3월 총괄국 우편물류

과장 교육 이후 잘못 관리한 국은 엄중 조치

- 인력 증원 관서 및 초과근무 과다관서를 특별관리하여 해당 총괄국 책임직 대책보고 등 지방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
- 「‘17년도 우정사업 경영실적 평가」 중 ‘집배인력 재배치 실적’은 주요 지표(비계량 5점)로 과정부의 본부장 평가사항임
 - 우정청내 집배 평준화 적극 실시 요청(소통평가 반영)
- 집배인력 예비율을 4%에서 10%까지 점진적으로 증대(집배부하시스템)
- 집배부하량 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개선·보완
- 집배팀제 확대 운영(모든 우체국에 적용)
 - 집배구 10~15명당 집배팀장 선발하여 오후 공동작업 물량을 구분하고 18시 퇴근 시행 및 연·병가 발생시 유고자 대신 배달

<류일광 집배인력담당 사무관>

- 우정청내 집배 평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
- 18년도 경영평가에 근로시간 개선도 반영

$$\text{※ 근로시간 개선도} = \frac{\frac{\text{평가년도 배달물량}}{\text{평가년도 근로시간}}}{\frac{\text{직전년도 배달물량}}{\text{직전년도 근로시간}}} \times \text{가중치(25)}$$

<박상윤 집배근로담당 사무관>

- 초과근무 운영 원칙을 노사합동으로 준비 중
 - 업무량에 맞게 지급 및 생산성 높은 직원(조기 귀국 직원)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
 - ‘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,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’를 위해서는 토요일근무시간 해결이 관건으로 동일 총괄국내에서는 토요일근무주기가 직원 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운영
- 아파트 전담 소포배달 중점 추진
 - 서신송달업체 활용방안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거리 감소라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방청별로 신중하게 접근
- ‘18년 상반기 근로개선 기획추진단의 우체국 현장 방문 예정

<본부장 강조사항 : 류일광사무관>

-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차량배달, 집배장비 스마트화 강조
- ‘집배달인’ 운영 계획 : 매월 100명 선발하여 3만원 상당의 경품 수여
(청별 집배인원 점유비로 배정, 자청 15명)
- 본부장 집배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진행